

모든 사람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두시고 필요시에 활용하세요.



인천광역시남구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인천광역시 남구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 전 관 리 과



호우발생시 행동요령

Contents

- 03 호우발생시 행동요령
- 09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 17 폭염대비 국민행동 요령
- 25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41 한파시 국민행동요령
- 49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 55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호우특보시 국민행동요령



호우특보시 대비요령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사전에 옮깁니다.
-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니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호 우	• 6시간 강수량 70mm 이상 • 12시간 강수량 110mm 이상	• 6시간 강수량 110mm 이상 • 12시간 강수량 180mm 이상



Q 산간계곡에서 고립이나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대비요령은?

A 산간계곡을 찾는 등산객이나 야영객은 기상정보와 호우상황을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하고, 호우 특보시 자동우량 정보시스템이 울리면 신속히 대피하시면 됩니다. 고립되거나, 급류를 만날 경우에는 물이 불어난 계곡을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반드시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우 예보 때는

-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해둡니다.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침수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동사무소나 시 · 군 · 구청에 연락해 알아 둡니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함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세요.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 대피할 때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시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 주의보 및 경보 때는

| 도시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 천동·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둡니다.
- 아파트와 고층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집 주변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를 합니다.
-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천동·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건지는 행위는 위험하니 하지 않습니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합니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려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잘 알아 둡니다.
-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미리 취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해 둡니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 천동·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연락합시다.
- 출입문, 창문 등을 잠급시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물에 떠내려가는 어망·어구 등을 건지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해수욕장은 이용하지 맙시다.

| 산악지역에서는 |

- 산사태 발생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시다.
- 재배시설 등의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합시다.
- 기상정보와 강우상황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구조적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 가스·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시다.



태풍발생시 행동요령



태풍특보시 국민행동요령



태풍특보시 대비요령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현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경작지 용·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니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특보기준

명칭	주의보	경보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Q 장마철이 지나면 바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A 태풍 경로에 있는 주민들은 라디오, TV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수구, 배수구, 집주변 축대·담장이 붕괴 우려가 있는지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특히 침수·산사태 위험이 있는 주민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오기 전에는

- TV나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둡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니다.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현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태풍이란?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 천둥 ·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낡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블을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둡니다.
- 집 주변이나 경작지의 용 · 배수로를 점검합니다.
- 어업활동을 하지 말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 주택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이 집 주변에 있다면 미리 치웁니다.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 선박을 단단히 묶어두고 어망 · 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집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감전위험이 있으니 고압전선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경작지 용 · 배수로를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태풍 주의보 때는

| 도시지역에서는 |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감속운행 합니다.
-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안지역에서는 |

-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해안도로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 천둥 ·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 · 군 · 구청 또는 한전에 신고합니다.
- 집 안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잠급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 어업활동이나 선박을 묶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로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해수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하지 맙시다.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막읍시다.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이 집주변에 있다면 미리 제거합시다.
-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시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정전 때 사용 가능한 손전등을 준비하시고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과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합시다.

| 농촌지역에서는 |

-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하천물이 넘쳐서 흐르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합시다.
- 논둑을 점검하거나 물꼬를 조정하러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방법과 비상시 대피방법을 확인합시다.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 둡시다.



태풍 경보 때는

| 도시지역에서는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집 안에 있도록 합니다.
- 낮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 산사태 징후가 있을 때는

장마철에는 어느 때 보다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보이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 이때는 땅속에 과포화 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 ☞ 이때는 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므로 위험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
 - ☞ 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 ☞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해안지역에서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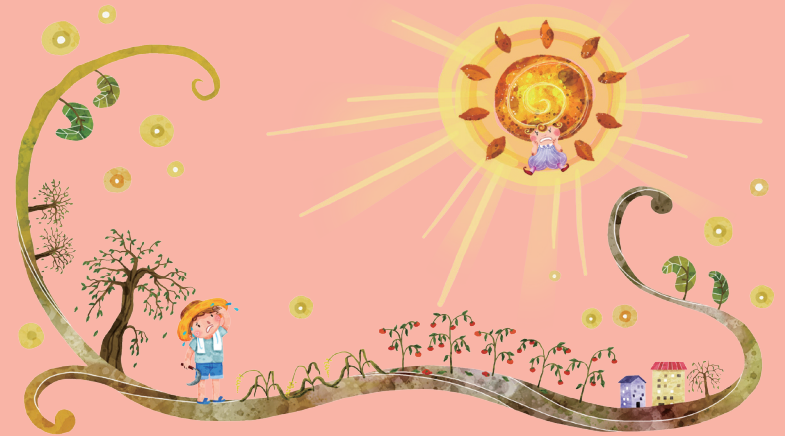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집 근처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웁시다.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교량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합시다.
- 선박을 묶거나 어망·어구 등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가족 간의 연락방법이나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시다.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합시다.
-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제방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가지 맙시다.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맙시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더울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전 준비사항은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 하세요.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주의)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반가정 등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탈수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세요.
-----------	---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 하세요.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 (알코올, 카페인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 폭염경보 발령시

일반가정 등에서는	• 오후 12시 ~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하세요. (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시간의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마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세요.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하세요.

학교에서는	• 특히,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 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12시~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쓰세요.

폭염 대처방법

▶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시다.
- 외출 시에는 가볍고 밝은 색 계통의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립시다.
-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합시다.
- 단,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합시다.
- 탄산·알코올·카페인에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십니다.

▶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 물은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갑시다.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읍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립시다.
- 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합시다.

▶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28℃)
- 한 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시다.
-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다.

-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보살피도록 합니다.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 필요시 도움을 줍니다.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축사 천장에 단열재를 부착합니다.
- 축사주변과 운동장에 차양을 설치합니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환풍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며, 사육 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 사육장 천장에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식혀주도록 합니다.
- 축사와 운동장의 분뇨를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섞은 사료를 먹입니다.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주지 않습니다.
- 모기 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축사를 소독합니다.
- 비닐하우스의 고온피해 방지를 위해 차광·수막시설을 설치합니다.
- 병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에 힘씁니다.
- 노지재배 채소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살수작업을 합니다.

▶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니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잠은 오래 자지 않습니다.
- 잠들기 전의 심한 운동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가볍게 운동합니다.
- 잠들기 전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말고, 허기질 때는 우유 한 잔 정도를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 커피,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담배는 삼갑니다.
- 잠들기 전에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하지 않습니다.
-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간단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폭염에 의한 손상의 원인 및 증상

▶ 원 인

열경련 (Heat Cramps)	과다한 땀의 배출로 전해질이 고갈되어 발생하는 근육의 경련
일사병 (Heat Exhaustion)	강한 햇볕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혈액의 저류와 체액과 전해질이 땀으로 과다 배출되어 발생
열사병 (Heat Stroke)	직접 태양에 노출 또는 뜨거운 차안 등에서 강한 열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며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함

▶ 증 상

- **열경련** : 일반적으로 다리 및 복부에서 경련의 형태로 나타남
- **일사병** : 피부가 차갑고 끈끈하며 창백하다. 현기증, 실신, 구토, 두통이 동반
 - ① 호흡 : 빠르고 얇은 ② 맥박 : 약하고 빠른
 - ③ 피부 : 차갑고 축축한 ④ 땀 : 과다 배출
 - ⑤ 몸 : 나약함 ⑥ 기타 : 현기증, 정신착란, 감각상실
- **열사병** :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다. 갑자기 무의식 상태로 될 수 있다.
 - ①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한 증상
 - ②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얇은 호흡
 - ③ 피부가 아주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 색을 띠
- 동공의 확장
- 의식저하,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짐
- 경련이 발생할 수 있음
- 후기증상으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음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의 비교

상태	근육경련	호흡	맥박	몸의상태	피부	땀의분비	의식상실
열경련	나타남	다양함	다양함	약함	다습, 따듯함	과다분비	상실없음
일사병	없음	빠르고 얇음	약함	약함	차갑고 축축함	과다분비	가끔
열사병	없음	깊은호흡 ↓ 얇은호흡	빠름	약함	뜨겁고 건조함	소량 또는 없음	자주

폭염시 응급처치 방법

▶ 열경련(Heat Cramps)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 환자에게 소금물 또는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하십시오.
(예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반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컵에 티스푼 1개 분량 정도)
- 편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십시오.
- 경련이 멈춘 후 약간씩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나 땀을 흘리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하십시오.

▶ 일사병(Heat exhaustion)

- 기도를 확보하여 주십시오.
-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십시오.
- 옷을 벗기고 오한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체를 서서히 냉각시키도록 하십시오.
-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을 마시게 하거나 전해질(이온) 음료(예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등)를 마시게 하십시오.
- 젖은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식히면서 부채질해 주십시오.
-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 열사병(Heat Stroke)

-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 의식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있습니다. 입안을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안에 체온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십시오.
- 환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입니다.
- 머리를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시원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 지진 발생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등을 차단합니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입니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됩니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합니다.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합니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또한 블록담, 자동 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됩니다.



Q 지진발생시 대형건물에 있을 때 대피방법은 ?

A 소파 혹은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해 몸을 웅크린다.
계단을 대피 공간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내부에서는 외벽쪽으로 대피한다.
복사지, 신문지 등 종이 더미 속으로 대피한다.

지진이 오기 전에는

- 지진발생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합니다.
※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마시다.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알아둡시다.
-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정한 부분을 수리합니다.
※ 가스·전기·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둡시다.
-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도 미리 알아둡시다.
-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 둡시다.
-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둡시다.
-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미리 해둡시다.
- 주택의 기초와 집 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진 발생 시 10가지 행동 요령

▶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니다 〉

-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대지진 발생시에는 소방차에 의한 소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을 끄려는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합니다.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들과도 서로 협력해서 초기 소화를 하는 것이 큰 화재를 막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는 습관과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 소화를 〉

▶ 지진발생시 불을 끌 기회는 3번 있습니다.

• 첫번째 기회

크게 흔들리기 전, 또는 아직 흔들림이 작을 때입니다.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 "지진이다. 불을 꺼라" 고 서로 고함을 질러 사용중인 가스렌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끕니다.

• 두번째 기회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입니다.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불을 끄려고 하면 난로나 스토브 위에 있는 주전자가 떨어지는 등 아주 위험합니다. 큰 흔들림이 멈추면 다시 한번 『불을 꺼라!』 라고 고함을 질러서 불을 끕니다.

• 세번째 기회

발화된 직후입니다. 만일 불이 나도 1~2분 이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둡니다.

- 또한 블록담이나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가까이에 가서는 안됩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등은 지진에 의한 문이 비뚤어져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습니다.
-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합니다. 만일 갇혀질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해 둡니다.



〈 집 밖은 위험이 가득, 먼저 안전을 확인 〉

▶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땅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게 되면 무엇인가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가까이 있는 대문기둥이나 담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 대지진시 블록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십시오 〉

• 블록담이나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입니다.

•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손이나 가방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

▶ 백화점이나 극장, 지하상가 등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큰 혼란의 발생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종업원이나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합시다.

• 지하상가는 지진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정전되더라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짙게 됩니다.

•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 대문 기둥 등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내려서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합니다.



〈 안전을 확인해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간헐할 경우에도 침착하게! 〉

• 고층빌딩이나 최근에 건설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관제운전장치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지진 발생시에는 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서 엘리베이터는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일 간헐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서 구조를 구합니다.

•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큰 충격이 닥쳐오므로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 등을 꼭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 후 차내방송 등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선부른 행동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면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 진도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철은 일시적으로 운행이 정지됩니다. 정차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지하철역에서는 정전되었을 때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둘러서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며, 큰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구내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 큰 혼란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선 몸의 안전을! 〉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킵시다.
- 비워 둡시다.
-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카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발생시에 차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도록 합시다.



〈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통제구역에서는 운전 금지 〉

▶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해일특보가 발령되면 시·군·구의 안내방송이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정보를 시청해서 신속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 산사태, 절개지의 무너짐, 해일에 주의를! 〉

▶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 대지진이 발생한 경우 많은 부상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전이나 교통정체 등으로 구급대, 의료기관도 평상시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재해발생시에는 부상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부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배워둡시다.



〈 응급구호의 지식을 배워 둡시다! 〉

▶ 피난은 마지막 수단

- 지진에 의한 화재가 크게 확대되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방법은 방재시민조직이나 수방단 등을 단위로 해서 관계공무원이나 경찰관등의 안내에 따르고,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한 대피는 절대 안됩니다.
-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등의 피난은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소부터 이웃사람들과 대피방법에 대하여 미리 의논해서 결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피는 걸어서! 소지품은 최소한으로! 〉

▶ 올바른 정보를 따라서 올바른 행동을

- 대지진 발생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됩니다.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 휴대 라디오 등으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합니다.
- 시·군·구나 경찰, 소방등 방재기관에서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하고, 결코 근거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선 안됩니다.



〈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

지진이 멈춘 직후에는

-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의하여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부위를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부상자의 호흡과 심장이 모두 또는 호흡이나 심장이 멈추었으면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하되, 환자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유리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읍시다.
- 주택안전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면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건물(굴뚝, 담장, 벽체 등)을 점검하되,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최초 진단은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 건물 내에 쏟아진 약품, 표백제,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종류·처리방법을 모를 때에는 그대로 두고 대피합니다.
-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 주요 관로와 가전제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해둡시다.
- 가스 새는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되, 가능하면 메인 밸브를 잠급시다.
-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 밸브를 잠근 후, 관계기관(지역 도시가스회사 또는 LPG 공급 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전문가의 조치를 받은 다음 재사용 합니다.
- 전기적인 이상이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립시다.
- 수도관에 피해를 보았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밸브를 잠급시다.
- 하수관로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지 맙시다.

- 캐비닛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문은 조심히 엽시다.
- 인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사용을 자제합니다.
-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들읍시다.
- 거리로 될 수 있으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면, 지진에 의한 피해(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 등)에 주의합니다.
-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해일에 대비합니다.

지진/평상시의 대비사항

▶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 옷장이나 그릇장, 냉장고 등이 넘어 지지 않도록 고정 기구 등으로 고 정해 둔다.
- 그릇장이나 창문 등의 유리부분에는 깨졌을 때 흩어지지 않도록 투명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여 둔다.
- 지진의 진동으로 안에 있는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찬장의 문 등은 고정기구로 단단히 고정해 둔다. 지진의 진동으로 안에 있는 물건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찬장의 문 등은 고정기구로 단단히 고정해 둔다.
- 텔레비전이나 화병 등을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한다
- 마루에 흩어진 유리 등으로 다치지 않 도록 평소부터 두꺼운 슬리퍼 등을 준비해 둔다.
- 열기구나 위험물의 보관 및 관리에 각 별한 주의를 한다.
- 블록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둔다. 가능하면 블록담을 피하고 산울타리로 한다.
- 불을 사용하는 장소 주위에 소방기구를 비치해 둔다.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한다.

▶ 가정에서는 비상용품을 항상 준비해 두자!



▶ 가정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방재회의를 갖자!

- 집안에서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 소화기구 설치장소의 확인 및 사용요령 숙지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간의 연락방법
- 대피장소, 대피도로의 확인
- 응급조치의 지식을 배워 둔다.
- 화기기구 등의 안전점검
- 비상휴대품용 상자의 점검, 보관장소의 확인



▶ 평소부터 이웃집과이 협력체제를

-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넓은 범위에 걸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람들과의 친목을 가져 화재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평소부터 이웃사람들과 급할 때의 협력체제에 대해서 논의 해 둔다.
- 방재시민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 방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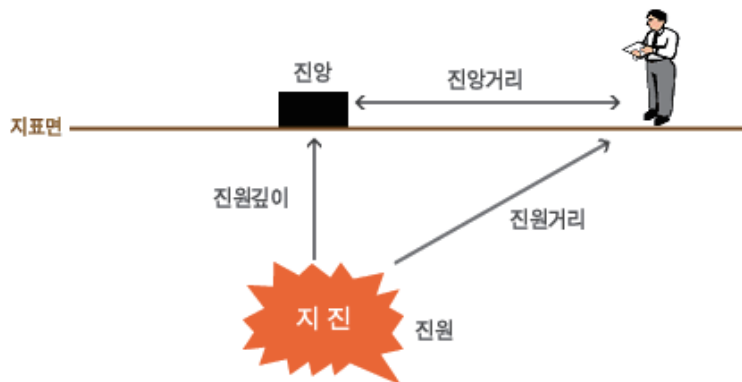
지진/지진발생 원인과 정도

▶ 지진(Earthquake)이란?

- 지구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이다.

▶ 진원(Hypocenter)과 진앙(Epicenter)이란?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의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이고, 진앙이란 진원의 바로위 지표면의 지점이다. 진앙은 위도와 경도로 표시하며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근지명을 사용하여 붙여진다.



▶ 지진의 규모(Magnitude, M)와 진도(Intensity, I)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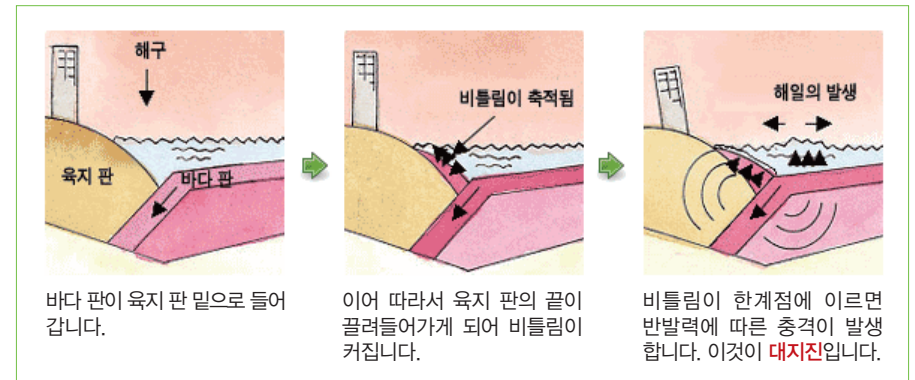
- 규모란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말하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Richt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기상청에서 정한 0~7까지 8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MM진도 1~12까지 12등급을 사용할 예정이다

▶ 진원(Hypocenter)과 진앙(Epicenter)이란?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의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이고, 진앙이란 진원의 바로위 지표면의 지점이다. 진앙은 위도와 경도로 표시하며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근지명을 사용하여 붙여진다.

▶ 지진해일(Tsunami)이란?

- 해저나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바다밑이 솟아 오르거나 가라앉아서 해수면의 변화가 생기거나 해저에 대규모 사태(沙汰)가 발생하면 큰 물결이 일어나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이것은 해안에 이르러 평소와는 다른 높은 파도로 되는 현상을 지진해일이라 한다.



지진의 규모 및 자연, 사람에 대한 영향

규 모	진도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인체영향
1.0 ~ 2.9	I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극소수의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3.0 ~ 3.9	II	건물 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낌	민감한 사람만이 느낌
	III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듯 한 진동	실내에서 특히 건물위에 있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느낌
4.0 ~ 4.9	IV	그릇, 창문, 문 등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지는 듯 한 소리를 냄	여러 사람이 느낌
	V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며, 고정 안된 물체는 넘어지기도 함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낌
5.0 ~ 5.9	VI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하며,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함	모든 사람이 느낌
	VII	설계와 건축이 잘 된 건축물에서는 피해를 무시 할 수 있으나 보통 건축물은 약간의 피해 발생	모든 사람이 놀라 뛰쳐나옴
6.0 ~ 6.9	VIII	특수 설계된 건축물에 약간의 피해 발생, 상품, 골목, 기둥 기념비, 벽돌이 무너짐	서 있기 곤란하고 심한 공포를 느낌
	IX	특수 설계된 건축물에도 상당한 피해 발생, 지하송수관 파손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음
7.0 이상	X	대부분의 건축물이 기초와 함께 부서짐	거의 모든 사람이 이성 상실
	XI	남아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으며 지표면에 광범위한 균열 생김	모든 사람이 이성 상실
	XII	전면적인 파괴상황, 지표면에 파동이 보임	대공황

한파시 국민행동요령



한파특보시 국민행동요령



한파특보시 대비요령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 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Q 겨울철 한파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보일러 동파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은?

A 관할 시·도는 종합상황실로, 시·군·구는 당직실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파 대비 사전에 지자체 긴급지원반이나 업체 비상연락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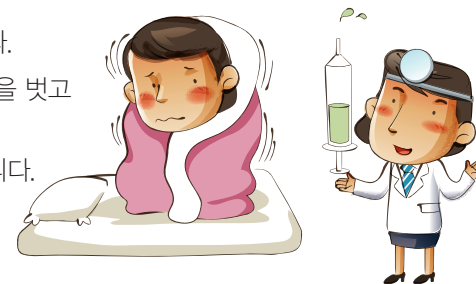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호 우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발령(주의보/경보) 때는

건강관리는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써야 합니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귀마개, 목도리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병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안 됩니다.



❖ 운동 때는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가동(稼動)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한파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한파 주의보** :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 경보** : 10월~4월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준비운동 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하며, 실내에서 해야 합니다.
- 운동은 가능한 실내에서 하는 게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고혈압 등 만성병 환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은 이뇨(利尿)·발한(發汗)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 등 운동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마시다.
-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충분히 보온을 하여 감기를 예방합니다.



❖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관리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마당과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야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보일러 배관 관리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물이 한 방울씩 흐르게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 관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 외출 때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이용 시 낮에 외출하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둡시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뒷길을 피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됐을 때는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동승자가 있으면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 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쉽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대책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합니다.
- 미끄러운 길에서 수동변속기 차량은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은 가속기를 서서히 밟아야 하며,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 커브 길을 돌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합니다.
-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 용품을 준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각종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 농촌·축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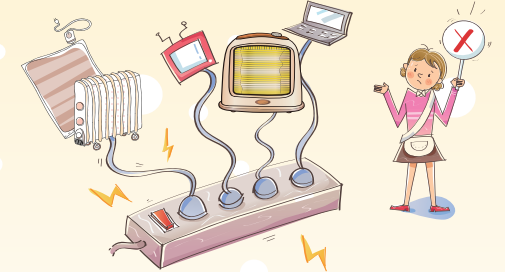
- 보리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하고, 온실작물 동해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난방, 온실커튼, 물 커튼, 축열 주머니 등)
- 온실 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하고 북쪽 벽에는 보온벽이나 방풍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하우스 주변에 단열재 및 보온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솥 등을 피워 보온해야 합니다.
-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축사 등에는 섯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보온을 해야 합니다.
- 한파 관련 기상특보를 수시로 청취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양식장에서는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육상 양식장에는 방풍 망을 설치하는 등 보온장비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장기 기상예보를 알아두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때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때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 어류가 동사하면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전기사용 때는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를 사용할 때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 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 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문어발식)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 전기 고장 시 즉시 한전 또는 한국 전기안전공사(1588-7500)에 신고 하고 개인이 임의 조작하지 맙시다.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멋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 가스시설 관리는

- 가스 잔량을 확인하고자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LPG 싸이폰용기(LPG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합니다.
- LP가스 사용 시, 이상이 발견되면 가스공급자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사용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 합니다.

❏ 유류시설 관리는

- 급격한 기온강하로 인한 동파예방을 위해 유류이송배관은 물 빼기 작업을 충분히 하고 부동액을 주입합니다.
- 장치의 동파 때문에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가스중독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보온 조치합니다.

❏ 광산에서는

- 갱 외 주요시설의 노출된 배관에는 보온재, 열선 등을 사용하여 동파를 방지합니다.
- 진입로, 운반도로 등에는 모래주머니, 염화칼슘 등을 비치하여 빙판길에 대비합니다.
- 한파 대비용 기자재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합니다.

❏ 지역난방 시설은

• 열원시설

- 겨울철 동파를 대비해 시설물을 관리하고 상태를 점검합니다.
- 눈피해와 동파를 대비해 복구용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합니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 상태를 점검합니다.

• 사용자 시설(지역난방)

-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온수 분배기 입구의 세대별(관리) 밸브를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온도조절기 고장 시 난방온수 분배기로 조정하고, 즉시 수리·교체해야 합니다.
- 난방 배관 내 공기빼기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 승강기에서는

- 승강기 기계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하여 기계실 창문 유리의 파손 여부 및 개구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손상 시 교체합니다.
- 피트(최하층 아래의 승강로)의 방수상태를 확인하여 손상 시 교체합니다.
- 승강장 및 카 바닥 물청소 후 얼음이 얼어 미끄러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승강기의 운행을 장시간 멈췄다 다시 사용할 때, 충분한 예비운전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을 시작합니다.

한파시 정전 대비 방법은

- 손전등, 라디오, 온열기 등을 준비합니다.
-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합니다.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대설특보시 국민행동요령



대설특보시 대비요령

-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니다.
-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특보기준

명 칭	주 의 보	경 보
대 설	•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 산지는 신적설 30cm 이상



Q 폭설로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고립·정체 되었을 때 행동요령은?

A 우선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서에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 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합니다.

눈이 많이 내릴(주의보/경보) 때는

| 차량운전자는 |

-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합니다.
-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으로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운행합니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니 삼갑시다.
- 지하철 공사구간의 복공판은 미끄러우므로 서행 운전합니다.
- 차간 안전거리를 넉넉히 두고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니다.
- 브레이크 사용 시에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 운전합니다.



| 보행자는 |

-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니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대설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대설 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이상 예상될 때
- 대설 경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이상 예상 될 때, 다만 산지는 30cm이상예상될 때

-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합니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눈길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합니다.
- 차도로 나와서 차에 오르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도 위험합니다.

| 가정에서는 |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 눈이 쌓이면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의 눈을 치웁니다.
- 낡은 가옥은 안전점검을 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에서는 |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니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농촌지역에서는 |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가지가 부러집니다.
- 비닐하우스에 처져 있는 차광막 등은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해예방을 위한 비닐 찢기 작업을 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 비닐하우스 대설 대비 관리요령

- 비닐하우스 규격에 따라 2~6m 이내 간격으로 보조지지대를 설치하기
-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보온덮개 · 차광막 걷어 두기
- 눈이 잘 미끄러지도록 하우스 밴드(끈) 팽팽하게 당겨 두기
- 비닐하우스 지붕 위, 연동하우스 곡부에 쌓인 눈 수시로 치우기
- 지붕에 쌓인 눈이 녹도록 난방기 가동하기

| 해안지역에서는 |

- 각종 선박 등을 대피시키고 입출항 통제 및 결박(고정) 조치해야 합니다.
- 수산 증 · 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해야 합니다.
-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은 해안가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 해안도로 운행을 피하고 안전장비를 부착한 후 통행해야 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폭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때는

- 출발 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 문자방송,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합니다.
-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 대피합니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 시킵니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 차량히터를 작동할 때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차량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연락을 취합니다.
-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은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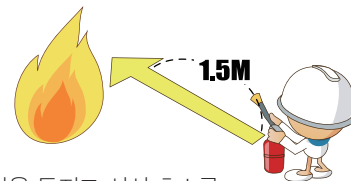
소화기 사용요령은

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②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③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④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 ·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Q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A**
- ①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②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 ③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④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⑤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화재 예방은

▶ 건물화재 예방

- 자택에 불필요한 가연물(현웃, 신문폐지, 폐박스 등)을 쌓놓지 맙시다.
- 인화성 액체(알코올, 휘발유 등)나 인화성 기체(부탄가스)를 함부로 놓지 맙시다.
- 카펫의 밑면이나 장롱 뒤편 등의 보이지 않는 곳에 전선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 어린이의 손이 닿거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곳에 라이터나 성냥갑을 두지 맙시다.
- 가스불 위에 요리를 올려놓고, 내버려둔 채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맙시다.
-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피우다 깜박 졸 수 있는 침대나 이불 주위에서는 피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큰 재떨이를 사용합시다.

• 고층아파트에서는

- 이웃으로 통하는 발코니 비상문 또는 비상 칸막이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막지 않도록 가구를 놓지 맙시다.
- 피난계단이 연기에 오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기를 피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발코니 창문을 염두에 둥시다.
-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문의 개방이 어려운 주상복합 고층아파트에서는 현관문을 통하여 연기의 확산이 예상되므로 연기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안전구역(밀폐 가능한 작은방 등)이 필요합니다.

• 고층건물(사무실)에서는

-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화재 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숙지합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시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읍시다.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졌으면 교체합시다.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시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맙시다.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맙시다.

• 다중이용업소(레스토랑, 노래방, PC방 등) 이용 때는

- 이용 전에 출입구 이외에 비상구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비상구가 개방되어 안전하게 지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시다.
- 미로형의 통로로 건축이 된 건물은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건물 이용 때는

- 지하층 출입구가 1개소인 건물은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 전기화재 예방

• 단락(합선) 때는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합시다.
- 용량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노후 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은 새 전선으로 교체합시다.
- 스위치, 분전함 등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 등을 제거합시다.
- 천장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 시설된 전선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시다.
- 배선은 가능한 보호관을 사용하고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못이나 스테이플러(종이찍개)로 전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합시다.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합시다.

• 누전 때는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회로를 분류하여 회로별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합시다.
-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시다.
-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 전기 스파크 때는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둥시다.
- 정전이 되면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둡시다.

- 배전반 내의 먼지, 금속가루 등 분진을 제거합니다.
- 밀가루, 톱밥, 섬유 먼지 등 가연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수시로 청소를 하여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 위험물, 기타 가연물은 두지 않습니다.



• 과부하 때는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합니다.
- 전기 기기의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을 사용합니다.

• 과열 때는

- 사용한 전기기구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놓고 외출합니다.
- 전기장판 등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전열기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고열이 발생하는 백열전구는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하고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합니다.
- 전선과 전선, 단자와 전선 등 접속부위는 단단히 조여서 느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불이 났다는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 (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 연기 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화재발생 후에는

화재 때 대피 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니다.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화재 신고 방법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침착하게 화재발생장소, 주요건축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우리 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신고순서

- ① 신고자 이름 : ○○○입니다.
- ② 화재가 난 곳의 주소 : 모를 경우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한다.
- ③ 신고자 전화번호 :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 ④ 화재 원인 : 전기, 기름, 가스 등

지하철 화재 발생 때는

-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습니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습니다.
-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니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합니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끄습니다.

지하상가 화재 발생 때는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 지하상가 구조상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절대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하여 대피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연기 · 열기가 급속하게 확산할 수 있으니 재빨리 피난합니다.

고층건물 화재 발생 때는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습니다.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호흡을 합니다.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니다.

화재 시 행동요령

▶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나

-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되며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 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처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 하여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 화재사고

- 불이 났다는 것을 주변에 신속하게 알린다.
- 경보기, 육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긴급 피난하게 하여야 한다.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야 한다.
 - 정확하고 침착하게 “여기는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한국 통신 뒤 6층 건물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 신고자의 전화 번호를 알려준다.
 - 가능하면 무엇이 타고 있는지와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면 더욱 좋다.

▶ 초기소화

- 화재 신고 후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전기 스위치를 내린다(곤다).
-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 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 씌운다.
- 가스 화재는 용기의 밸브를 잠근다.
 - ※ 이때 주의할 점은,
 - 전기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감전 위험이 있다).
 - 기름 종류의 화재에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 가스화재는 폭발성이 있으므로 갑자기 문을 열거나 전기 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안됨

▶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서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서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요령은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 시 119 신고요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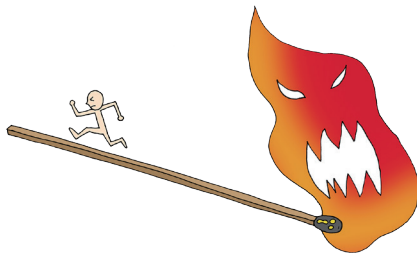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은?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화재 시 긴급대피요령

-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입니다.
-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었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 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서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화재 시 긴급대피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를 알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화재 시 연기와 인명피해

- 화재시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 60% 이상 차지, 산소결핍 및 유독가스의 혼합 및 상승작용으로 강한 독성 발생
- 당황하면 평소 보다 3배 호흡량이 많아져 다량의 유독가스 흡입

▶ 연기 속 완벽한 대피를 위한 전제조건

- 화재가 적시에 감지되고, 화재경보가 울려야 한다.
- 수용인원이 경보를 듣는다.
- 경보를 들은 모든 인원이 대피를 시작한다.
- 대피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비상구로 향한다.

▶ 연기 속 인명피해 예방(피난유도 요령)

- 피난유도는 건물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실시(종업원, 건물주 등)
- 유도등의 불빛에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유도하고 비상조명등 활용
- 우선 사람들을 안정시킨 후 이동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아파트에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터널 화재

▶ 도로터널 이용 시민고객 안전운행 예방

- 터널 진입전 입구 주변에 표시된 도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 감속 및 전조등, 차폭등을 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글라스는 벗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신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차선변경은 해서는 안 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터널 화재 시 시민고객 대비·대응

-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한 갓길 쪽으로 정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신속하게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상전화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차량의 부상자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비상전화 및 휴대폰 사용 터널 관리소 및 119 구조요청)
-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나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으로 조기 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 진화가 불가능할 경우 화재 연기를 피해 유도등을 따라 신속히 터널 외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터널 화재 복구

-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 경찰서에서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견인차로 차량을 이동조치 합니다.
- 화재 발생부터 화재 진압 복구 시 까지 비상방송을 계속 진행하여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대형화재

▶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니다.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시

❖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니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읍시다.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합니다.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니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합니다.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니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니다.
-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않습니다.
-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지하상가에서는 화재 안전수칙

-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 평소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하게 전기배선을 하지 않습니다.
-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난·불연 내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 방화 셔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대형시장 건물 등에서는 화재발생시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잘 관리합니다.

지하철 화재 발생시

역사 내 화재 대처 요령

화재경보	역사내 화재용 비상벨(발신기) 버튼을 눌러 모든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립니다.
긴급연락	승강장의 비상통화장치 및 벽등에 부착된 긴급연락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역무원에게 알리고 소방서 (119)로 신고를 합니다.
초기진압	초기화재시 역사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불을 끕니다.
대피요령	역무원 및 소방관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 시 유의사항

- 역무원이나 소방관등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하십시오.
-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경우 옷이나 수건, 소방용품보관함에 비치된 방독면을 착용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하십시오.
- 벽면 및 바닥에 부착된 통로유도등을 따라 대피하여 주십시오.
- 가급적이면 화재발생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 통로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선로 쪽으로 대피하여 주십시오.
-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피하십시오.
- 선로로 대피하실 경우 승강장에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 직원이 없는 경우 열차가 진입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터널 내 이동시 레일 중앙은 위험하오니 레일 좌우주변을 따라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동하십시오.
- 이동시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손을 잡아 서로를 격려하며 침착하게 이동하십시오.

열차 내 화재 대처 요령

- 객실끝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로 승무원과 통화합니다.
- 차장또는 기관사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합니다.
- 국번없이 119에화재를 신고합니다.
- 객실 양끝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은후
- 선로에 내릴 땐 다른 열차가 오는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 출입문을 양쪽으로 열어 개방한 후 탈출합니다.
-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좌석 양 옆 하부(구형) 또는 상부(신형)에 위치한 비상코크를 사용하여 소화약재를 화재가 발생한 곳에 뿌려 신속히 진화합니다.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①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②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③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소화전 사용요령	①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③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④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대피 시 유의사항

- 대피 시에는 손수건이나 옷소매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역무원의 유도 안내 및 비상유도등을 따라 출입구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 시에는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 등을 우선 안내하고 차장, 기관사 및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본 매뉴얼은 재난 발생시 기본적인 예방 홍보, 재난·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수칙준수로 사전예찰 및 활동 시 매뉴얼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안전의식 고취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구민의 안전문화 인식을 제고함에 있으며, 향후 현장 경험과 보충 관련지식을 축적하여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 보완 할 계획입니다.